

“개인 타이틀도 좋지만 목표는 우승”



■ KBO 부문별 1위 KIA 선수 <8월 16일 현재>

타격-김선빈

0.388



타점·출루율·OPS-최형우

102...0.477...1.126



다승-양현종

17



득점-버나디나

95



최다 이닝-헷터

147.2

막바지로 향해가는 2017시즌 '1위'를 향한 KIA 타 이거즈 선수들의 막판 스퍼트가 이뤄진다.

KIA는 4월 12일을 시작으로 1위 자리에서 내려오 지 않고 있다. 후반기 초반 손발이 맞지 않아 제자리 걸음도 했지만 16일 NC 다이노스에 2연승을 거두면서 2·3위와의 격차를 벌렸다.

이젠 팀 1위만큼이나 개인 1위에도 시선이 간다.

1위에 이름을 올려놓은 KIA 선수는 김선빈, 최형우, 버나 디나, 양현종, 헷터 등이 있다.

16일 현재 김선빈은 0.388의 타율로 NC 나성범(0.368)과 팀 동료인 최형우(0.367)에 앞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형우는 16일 3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102타점으로 타점 1위다. 92개의 SK 최정 보다 먼저 100타점을 넘긴 최형우는 4년 연속 100타점이라는 기록도 작성했다. 이는 우즈(두산), 박병호(전 넥센)에 이어 세 번째다. 최형우는 출루율(0.477)에서도 1위 를 지키고 있다. KBO에서 사상하지 않는 OPS(출루율+ 장타율·1.126), 볼넷(77개) 기록에서도 가장 먼저 최형우 의 이름이 나온다.

타율과 타점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이끌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이들은 개인 기록보다는 팀 1위를 먼저 보 고 있다.

김선빈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타율 1위를 말 하기에는 이르다. 나중에 기록이 눈에 보일 때쯤 생각해 보 겠다”고 언급했다. 김선빈은 16일 경기에서도 안타 하나 를 보태기도 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타율 1위 목표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도 멀었다. (타율 1위) 보이지 않는 다”며 고개를 저었다.

최형우도 2인자로 조용히 동료들을 돕겠다고 말한다.

최형우는 4년 연속 100타점 기록에 대해 “100타점을 의 식 하지는 않았다. 타점에 대한 비결을 찾자면 긍정적으로 즐기는 것이다. 놀러 나간다는 생각으로 위축되고 그런 것 보다는 즐겁게 하려고 한다. 매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싶다. 동료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내 것만 하면 된다는 생 각이다”며 “ MVP에 대한 욕심은 지난해 2등을 한 순간 버렸다(웃음). FA 계약도 했고 팀도 잘 나가고 있다. 팀 동 료인 (양)현종이나 노에시가 받으면 좋겠다”고 4번 타자 로서 팀 우승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버나디나도 95차례 홈을 밟으며 득점 1위다. ‘바람의 손 자’ 넥센 이정후(88득점)가 그 뒤를 이어 2위. 하지만 버나 디나도 개인 기록, 수치보다는 우승을 먼저 이야기한다.

다승 1위는 집안싸움 양상이다. 전반기에는 헷터가 연 승행진을 하며 1위 질주를 했었고, 잠시 추종한 사이 양현 종이가 17승으로 다승 단독 1위로 치고 올랐다. 하지만 헷터 가 16일 16승을 수확하면서 양현종을 바짝 추격할 동시에 12승의 니퍼트(두산)와 켈리(SK)를 멀리 떨어트려 놓았 다.

양현종은 슬슬 다승왕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 15 일 17승에 성공한 뒤 “다승왕에 욕심을 내겠다. 내가 많이 이기면 팀도 많이 이기는 것이다. 헷터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 헷터가 이겨야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다”고 언 급했다.

헷터는 “양현종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을 몰랐다(웃음). 잘해가고 있고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1등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열심히 하고, 아웃카운트 많이 잡아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 했다.

많은 아웃카운트를 이야기한 헷터는 자신의 바람처럼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닝(147.2)을 소화하고 있다.

팀 1위와 함께 기록 1위를 향한 ‘호랑이 군단’의 도전이 흥미롭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학범 감독 “전북 잡겠다”

광주 FC, 내일 전주서 클래식 27R

“약팀·강팀은 종이 한장 차이” 자신감



‘김학범호’가 리그 1위 전북 현대를 상 대로 시합대에 오른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오는 19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2017시즌 K리그 클래식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13일 대구 FC와의 홈경기까 0-1 패로 끝난 뒤 광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패배 다음 날인 14일 광주의 승격 과 잔류를 이뤄냈던 남기일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했다. 그리고 갈 길 바쁜 광주는 지난 16 일 김학범 감독을 새사령탑으로 선임해 새로 진용을 짰다.

현재 광주는 4승 7무 14패(승점 19)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앞서 치른 10위 대구와의 경기에서 패하며 11위 인천과 의 격차도 4점 차까지 벌어졌다. 갑작스 러운 수장의 사퇴로 인한 분위기도 수습 해야 한다.

경험 많은 김학범 감독이 위기의 팀을 맡아 반격에 나선다.

김학범 감독은 K리그를 대표하는 명 장이다. 그는 지난 2006년 성남 일화(현 성남FC) 우승을 이끌며 주목을 받았다. 위기에 빛나는 승부사이기도 하다. 김학

범 감독은 위기의 팀을 구하는 데 있어 큰 능력을 발휘했다.

지난 2012년 강원 FC 잔류를 이뤘고, 2014년에는 친정팀 성남 FC로 돌아와 클래식 잔류는 물론 FA컵 우승까지 이 뒀다. 지난 2015년에는 성남을 시민구 단 최초 AFC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 러놓고, 클래식 5위라는 성과도 이뤄냈 다.

치밀한 전술과 카리스마를 앞세운 김 학범 감독은 리그 1위 팀의 안방으로 가 광주 데뷔전을 치른다. 위기 상황에서 강격을 만났지만 김학범 감독은 승리를 이야기한다.

김 감독은 감독 선임 인터뷰에서 “약 팀과 강팀이 있지만 모두 종이 한 장 차 이다. 승부를 가르는 건 정실력이다”고 언급했다. 철저한 전력분석으로 전복을 잡아내겠다는 게 김학범 감독의 각오다.

리그 선두 전북은 강한 전력으로 무장 한 큰 산이다. 여기에 전북은 클래식 최 초 100승에 1승을 남겨두고 있어, 승리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광주는 강팀을 상대로 강한 면 모를 보였다. 강팀에 쉽게 물러나지 않 으면서 광주만의 전력을 보여줬다. 전북 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4월 30일 홈경기에서는 1-0으로 승리했고, 7월 19 일 원정에서 1-3으로 패했지만 전북을 위협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최하위 광주가 새로운 사령탑과 함께 하는 첫 경기에서 반전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신태용호 1기’ 캡틴은 구자철?

선발 출전 불투명 기성용 대체 1순위

지난 14일 닷을 올린 ‘신태용호 1기’ 26명 가운데 누가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 지휘자’로 나서게 될까?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전 (31일)과 우즈베키스탄전(9월 5일)에 출 전할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이 발표되면 서 대표팀 ‘캡틴’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 체제 때는 간 판 미드필더 기성용(28·스완지시티)이 주로 주장 완장을 썼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 변했다.

기성용이 지난 6월 14일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예선에 끝난 후 무릎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이란전과 우즈베키스탄전에 정상적으로 출전할지 여부 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대표팀 명단 에 이름을 올렸지만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빌 가능성이 작아진 것이다.

주장이 대표팀의 ‘얼굴’이라는 면도 있지만 경기 진행되는 동안 그라운드 안에서 사실상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 꾸준한 출전 시간이 확보되는 선수가 주로 낙점을 받아왔다. 선발 출전이 보장되는 선수가 ‘신태용호 1기’ 캡틴 중 책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 이유다.

기성용이 말기 어렵다면 대체할 1순 위 후보는 구자철(28·아우크스부르크) 이다.

구자철은 2009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2 런던 올림픽, 2014 브라질 월드컵 까지 홍명보 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모든 국제 대회에서 주장을 맡았다.

슈틸리케 전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초기에는 구자철이 대표팀 캡틴으로 활약했다. 최근 소속팀에서 완 벽한 경기력을 회복한 구자철이 기성용 을 대신해 대표팀의 ‘중원사령관’ 역할 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부담감 떨쳐내고 실력 보여달라”

영원한 캡틴 박지성의 당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영원한 캡틴’ 박 지성(36)이 이란 및 우즈베키스탄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9~10차 전을 앞둔 ‘1기 신태용호’ 태극전사들에 게 “부담감을 떨쳐내고 자신들의 실력 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성은 17일 대한축구협회의 KFA TV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오 는 31일 이란전(오후 9시·서울월드컵경기장)과 내일 5일(한국시간 자정·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전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파주NFC(대표 팀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되는 26명의 태 극전사에게 격려의 말을 남겼다.

그는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 상대인 ‘난적’ 이란에 대해 “아시아에 속한 팀이지만 체형은 유럽에 가깝다”라며 “전 체적으로 거칠고 힘 있는 축구를 구사해 서 다른 팀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 상대인 ‘난적’ 이란에 대해 “아시아에 속한 팀이지만 체형은 유럽에 가깝다”라며 “전 체적으로 거칠고 힘 있는 축구를 구사해 서 다른 팀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 상대인 ‘난적’ 이란에 대해 “아시아에 속한 팀이지만 체형은 유럽에 가깝다”라며 “전 체적으로 거칠고 힘 있는 축구를 구사해 서 다른 팀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분석했다.



‘엘클라시코’ 레알 마드리오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오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오와 바르셀로나의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2차전에서 승리한 레알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 이날 레알은 마르코 아센시오와 카림 벤제마의 연속골로 바르셀로나를 2-0으로 제압, 1.2차전 합계 5-1로 5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호날두는 경고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연합뉴스